

---

## AT&T, 맛코 셀룰러의 株式 取得

---

1992년 11월 AT&T는 맛코 셀룰러 주식의 33%를 취득, 업무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섭중임을 밝혔다. 이 제휴가 실현되면 맛코는 AT&T의 브랜드로 AT&T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50억 달러 이상의 장기부채의 재무상황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AT&T는 영업이던 가입자 회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국 규모의 end to end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맛코가 자본 참여하는 홍콩의 셀룰러 회사인 스마트컴의 동향도 미국에 대한 국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양사는 차세대 퍼스널 통신서비스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므로 AT&T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AT&T는 이미 에릭슨과 함께 맛코에 셀룰러 교환기를 납입하고 있으며 신규개발의 기술공급 등 양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 FCC, 콜롬비아의 個別 衛星시스템에 關한 申請을 一部 認可

---

개별위성 시스템 회사인 콜롬비아 커뮤니케이션즈는 FCC에 대해 1) 서태평양 지역의 미국령(괌 등)과 미국 본토간의 모든 종류의 국내통신 서비스 제공, 2) 64Kbps 換算으로 최대 100회선을 국제공중회선용으로 제공할 것, 3) 모든 종류의 국제전용 회선 서비스 제공, 4) 앞으로 개별 위성시스템에 관한 규제의 변경을 라이선스에 자동적으로 반영시키는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중 1), 2)는 인정되고, 3)에서는 PSTN에 접속되지 않는 모든 국제 전용서비스와 긴급용 레스트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되었으나, PSTN에 접속되는 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4)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라이선스에 반영시키는 변경만은 인가할 수 없다하여 기각되었다.